

노정기라



[해제]

" <노정가라>는 작자와 창작시기를 알 수 없는 신변탄식류에 속한 규방가사작품이다. 이 작품은 국문으로 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이 필사본에는 가사의 제목이 <노정기(路程歌)>라고 써어 있다. 사돈댁을 찾아가는 어머니의 마음을 풍물(風物)에 이입시켜 읊었으며, 작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딸을 둔 부모의 도(道)에서 느낀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

[원문]

노정기라

분여숨면지 노정기라

어와식승 스람드라 이니말삼 드러보소

여식도 조식도 조식인가 슈력쫓코

가직흔지 송하촌의 서로이 반석갓치

안침씨겨 종종왕니 서로하여 짓초조기

보렸든이 식승식 불고하나 오금숙의

바람드르 조상 분묘에 나두고려나

친척 화식화고 별이타향 머다말고

인음갓치 횡종한이 가련하다 여조인싱

시딕의 밭인몸이 안이가고 어이하리

연천하고 어린거시 굿퍼엇시 가난도다

팔련풍진 조한씨도 지복기 무균하며

유조유손 하엿난디 풍진세월 으르한가

광풍갓치 쓰나간이 식승법이 무슴도다

즐가거라 슈이가마 게우하고 보닌후의

이달저달 계영화고 이히저히 보닌후의

셔식스 우중이 뵈겨셔셔 식승스랄

싱각한이 겨영한일 쫓치업다 우리스돈

간다한이 잇씨랄 볼죽시며 춘풍삼월

호시저리 도횡쫓코 씨조홀디 빅스만스

다든지고 불고전후 할지라도 겨영한일

하여보자

계축승월 초구이리 셔강시에 발횡하여

심이라도 겨우가서 번기촌의 드르조고

정인스 무드녹코 조식하고 쓰나셔셔

동구박게 싱각한이 우리횡식 고이하다

집신간발 신들미고 죽중막디 뒤든지고

도망횡식 무손일고 어셔가조 밧비가조

고실골노 들흐가셔 슄돈소관 지강보고

영득쌍의 너머서서 오십천근 지닌후의
도계촌 도후화고 고천의 숙소하고
송숯촌 지닌후의 지경두울고 올라서서
말이총히 바리본이 호호막막 디히슈난
어부스공 히롱하고 울녕출녕 파두물결
빅옥을 헛치난듯 수방의 버린총선
빅구갓 쓰여잇고 화살갓치 가난윤슨
흑운을 지어닌다 히중의 중기약손
무슨소관 박바셔러 말이타국 바리보고
조미업시 쫓초간고 청화쌍 드르가셔
호덕중터 호덕중터 요기하고 젓지고게
너미서서 닝슈정이 숙소하고 앵동인가
드르가셔 잇틀밤 유련하고 경주안강
느른고딕 중터가게 도로하고 송하정전
술퍼본이 광활천지 너른드릭 봉봉기웁
천낭기난 총히슈랄 지어닌당 줄부중이
올나가셔 너들을 숙소하고 싯히지랄
너머서서 영천후양 지닌갈지 길가잇난
절문각시 중중이 셔로이셔 인물병중
돌너놋코 핫초중의 드르안조 식복드로
그린다시 아미단중 곱게하여 술구기랄
압피두고 안난묵승 길게썩셔 저기가신
저셔방님 이리오소 저리오소 다정하게
청히셔르 술한잔 좁고가소 소쥬약쥬
다이신이 청한딕로 할트이라 쥬량딕로
들고가소 객싯하고 조요한이 중시중관
뉴각하소 저기안진 저진씩이 은근하게
화난기동 무슨인정 이숫든고 인물도스
조큰이와 소리도 양존하다 우리셔이
싯도횡이 탐화봉접 그안인가 싯흘보고
어딕가리 꺾연초울 입의물고 집신간발
후르놋코 울적하게 드르간이 천화일미
화륙점을 어식어식 비여스르 오만양염
갓춘후의 이리저리 직여놋코 싯부을
달기하고 전고트릭 언지논곳 빛도스
쫓켄이와 님시도 홀난하라 다른안쥬
볼즉시면 과실치소 쥬물승의 기너전복
버리놋코 뵈옥갓탄 손을니아 구술갓탄

존을들고 소쥬약쥬 연가한들 집쓰난지
오리된이 무슨조 분만이서 소죽약쥬
먹을손야 맛걸이나 나한잔 쥬며쥬개
탁쥬존을 바다 무시게나 하여보조
한사람은 승낙하고 한사람은 흥기부르고
또한사람 실낙하고 초횡한번 치룬후의
연초술노 먹이보조
셔로안조 능담하고 싱각흔이 반이리
능난구나 길밧부다 핑계하고 동동축축
이르나셔 줄이시오 영간시리 디답하고
조른목을 길게씩스 총문밧게 닉다며
줄가시오 정안 정안이도 부화야회도
다시 만납시다 도라셔셔 싱각한이
식승의 여운호걸 무전천지 여기로다
미정하게 도라셔셔 길것기로 이을숨아
히담으로 소일한나 와촌들을 닉히다분이
스야의 농부드른 실농시룩 을뵈리기
양가로 화담헉닉 화술갓치 소든시그슨
룬초마초 전동소리 횡각이 분쥬하다
화양음의 오웃하고 봉하돔이 내려가셔
지긋춤 족정한이 일역도 거의할시고
되기도 기지업다 각쥬적의 드르가셔
탁쥬한존 농근후의 셔로안조 싱각한이
천만금 우리인신 지직 송활로야
마초을 타고가셔 다락갓한 호달마의
교조갓치 쥬민초의 솟스인이 올나안자
비호갓치 가단말게 무무화여 드르가셔
딕구성닉 딕강본이 이전모양 간딕업고
벼류천지 도얏도다 조방의 전등부른
화전촌이 되엇구나 공중의 달인등은
이월이 분명하야 일월성신 비렷도다
기명세월 이르한가 쥬야분간 어렵도다
쥬가의 초조가셔 쓰신방의 편케쉬고
날신후의 닉다분이 일기괴승 우기이서
취우중 안쥬다가 오후한춤 멋진후의
구경하로 가조셔라 술퍼본이 스방의
전방지물 지물갓도 안이하고 전후좌우
제계집은 귀구린가 으심된다 어기저기

뒤보고 쥬가의 도라가서 전녁먹고
류화후의 속속히 이러나서 아직먹고
쓰나간이 초시간이 밧바도다 순스팔이
오란스리 초군을 짓촉한다 거름거리
쌀이하여 정거정의 드르가서 초표를
쓴으지고 시간을 시간을 기다나서
초칸의 올나안조 붓다리를 놓히은고
평심못본 타선분여 동기갓치 견티안고
앗치가난 화통명기 무지계가 훗스로
초쓰나난 고동소리 천지가 진동한다
번게갓치 가난윤초 구름갓치 쓰나간다
남죽으로 부난바람 현금소리 절노하고
차안의 인난스람 방공중의 올낫도다
스방의 유리영창 이리저리 찍켜녹코
빅운갓치 쓰며간이 신선이 이안인가
식상 조화 기절하다 축손동도 허난법은
뉘가하여 씨견난고 굴소고 들어갈지
져성인가 이성인가 문간초기 어렵도다
초안의 전동불은 꽃봉의가 흥사로다
구미윤듯 소리 성전고랄 올이난듯
스빅열리뒤 난기봉 출갓치 드르가서
문여서로 송면하여 손을잡고 반긴후의
너의모양 확실하다 인품조흔 너의시뵈
싸님갓치 키운일 은히랄 언치나
다할손가 도로이슈 싱각한이 본국인가
타국인가 낙낙하다 그날밤 식운후의
스방팔도 슬퍼본이 이전모양 간뒤업고
신술임이 무순일고 일변은 괴송하고
일변은 우숨도다 총청도 계룡산은
웃드한고 하엿든이 와서본이 이와로
십버일 유한후의 분여서로 쫓칠적의
줄잇그라 줄이시며 총성후의 다려다가
가친당의 모여안조 그린힛포 셔로하고
히소담낙 활터이라 밧달안가 올거신이
실허말고 줄잇그라 못본다시 도라셔셔
스돈기리 줌관불뒤 직천와셔 하직하고
손의올나 뒤구와 속소하고 하양쌍의
드르스니 원구독슈 관계만나 여기승봉

여위로다 이말저말 다바리고 익동안부
드르난가 디답히고 점직하게 하난마리
독기스 실치마난 쯔늬 실흔난
봉충하고 산충하다 이말을 고난이
정신이 아득하고 만막이 스라진다
일노보면 쯔식쯔손 의무리라 잇든싱기
업어지고 만막이 스라지고 말든술이
황흔디이 실망업시 올라가셔 싱각한이
나무조송 될기시면 쯔연지 썩일손가
마암을 다시먹고 강증하게 길을올디
츄시미 드르조고 처롱가서 아직먹고
영천롱 닉도가셔 조양각을 올라간이
경치도 쯔큰이와 스방의 풍경단집
이전형용 전허업니 충하벽절 디고청동
그란치식 등천하고 업셔져다 돛단빅
디랄 지워물고 쯔시안쯔 쉬온후의
중트로 건느가고 업난소관 잇난다시
이전저전 단이면스 방구져외 슈겨미고
반화중트 가게밋티 국속하게 안쯔신이
지국청직 말할지셔 과객형식 분명하다
정신업시 안쯔다가 영천으로 올라간이
우리고모 거동보소 파파노인 늘근모양
마구할미 흡스로다 동셔남북 계신고모
슴형지분 모아다간 천하귀물 습품될듯
경상도 갓다눓코 동물회스 꾸며시며
스급한중 우습도다 오륙일 뉴한후의
집이라고 츄쯔온이 어셜푸고 경화업다
구슬갓탄 손아모양 안전의 발퍼잇고
우중의 식스람은 유중으로 파중한이
닉의마암 엇들손야 울화가 절노나고
심신이 슬난하야 노독인지 몸술인지
슈슴일 디충히고 병석의 누엇신이
심신이 슬난하야 노정위를 디강씩가
보나온이 너의두고 조용할디 불지이다
깃축스웰 이십이리니 아비죽송 흥노라
이만삿흘 맞친듯 글시괴괴 보시난이
뵈소마오 병술년 정월초 오일낫
질하엿난 곳

스항가라

어와 가소로다 여즈신슈 가소로다
원부모 니형지도 후싱늑부 모타인갓고
싱아지지 타항이로 뉴복동기 다형지로
니별후면 타인갓고 조부모가 즈시나흔
빈귀령 국난후로 무익불로 아른드른
우리티부 즈천히젯 퉁치손도 나즈시고

[현대역]

노정가(路程歌)라

분여 삼면 지 노정기라

어와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여식도 자식도 자식인가 수력 좋고

가직한지 상하촌의 서로이 반석¹같이

안심시켜 종종 왕래 서로하여 짓차조기

보렷던이 세상 새 불고하나 오금속의

바람드르 조상 분묘에 나두고 련나

친척 화색화고 별이 타향 멀다말고

인읍²같이 상종하니 가련하다 여자인생

시댁의 매인 몸이 아니 가고 어이하리

연천³하고 어린것이 굶어엇시 가난도다

팔년풍진⁴ 좋은 때도 지복이 무군하며

유자유손⁵하였는데 풍진세월⁶ 이러한가

광풍⁷같이 떠나가니 세상법이 무섭도다

잘가거라 수이⁸가마 게우하고 보낸 후의

이달저달 계영화고 이해저해 보낸 후의

셔식스 우중이 뵈겨서서 세상사를

생각하니 겨영 한일 끝이없다 우리사돈

간다하니 이때를 불작시면 춘풍삼월⁹

호시절에¹⁰ 도행 좋고 때 좋을 때 박사만사

다 던지고 불고전후¹¹ 할지라도 겨영한 일

하여보자

계축¹²삼 초구일에 서강시에 발행하여

심이라도 겨우가서 번개촌의 들어자고

정인사 물어놓고 조식하고 떠나서서

동구 밖에 생각하니 우리행색 고이하다

짚시간발 신들메고 죽장막대¹³ 뒤던지고

도망행색 무슨일고 어서가자 바빠가자

고실골로 들어가서 사돈소관 지강보고

영득땅의 너머서서 오십 천근 지낸 후의

도계촌 도후화고 고천의 숙소하고

송숫촌 지낸 후의 지경도 울고 올라서서

만리창해¹⁴ 바라보니 호호망망 대해수¹⁵는

어부사공 히롱하고 울렁출렁 파도물결

백옥을 헛치 난 듯 사방의 버린 총선
 백구가 뜨여있고 화살같이 가난윤슨
 흑운16을 지어낸다 해중의 장기약손
 무슨 소관 박바셔러 만리타국 바라보고
 잠이없이 쫓아간고 청화땅 들어가서
 호적장터 호적장터 요기하고 첫째고개
 넘어서서 냉수정이 숙소하고 앵동애가
 들어가서 이틀밤 유련하고17 경주 안강
 넓은 곳에 장터가게 도로하고 상하정전
 살펴보니 광활 천지 넓은 들에 봉봉기맥
 천랑기는 창해수18를 지어낸 듯 줄부 종이
 올라가서 너들을 숙소하고 싯해재를
 넘어서서 영천하양 지나갈 때 길가에 있는
 젊은 각시 줄줄이 서로 있어 인물병중
 둘러놓고 하초 중의 들어앉아 새벽으로
 그린다시 아미단장19 곱게하여 술구기를
 앞에 두고 앉은 목승 길게빠서 저기가신
 저서방님 이리오소 저리오소 다정하게
 청해서로 술한잔 잡고가소 소주약주
 다있으니 청한대로 활터이다 주량대로
 들고가소 깨끗하고 조용하니 잠시잠깐
 유각하소 저기 앉은 저 진맥이 은근하게
 화난기동 무슨 인정 있었던고 인물도사
 좋거니와 소리로 양전하다 우리 셋이
 싯도행이 탐화봉접20 그아닌가 끝을보고
 어디가리 권련초21를 입의 물고 짚신가발
 흘러놓고 울적하게 들어가니 천화일미
 화륙점을 어식어식 비여스르 오만양념
 갖춘 후의 이리저리 재여놓고 숯불을
 달기하고 전고틀에 얹어 논듯 빗도사
 좋거니와 냄새도 흥난하라 다른 안주
 불작시면 과일채소 주물상의 문어전복
 벌려놓고 백옥같은 손을 내어 구슬같은
 잔을들고 소주약주 연가한들 집떠난지
 오래되니 무슨 자 불만 있어 소주약주
 먹을소냐 맛걸리나 나 한잔 주며주게
 탁주잔22을 받아 무시게나 하여보자
 한사람은 상대하고 한사람은 흥기23부르고

또한사람 신랑하고 초행한번 치룬후의
연초술로 먹이보지
서로 앉아 농담하고 생각하니 반이리24
넘는구나 길 바쁘다 핑계하고 동동촉촉25
일어나서 잘있으오 영간시리 대답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서 창문 밖에 내다며
잘가시오 정안 정안이도 부화야회도
다시 만남시다 돌아서서 생각하니
세상의 영웅호걸 무정천지26 여기로다
미정하게 돌아서서 길걸기로 일을삼아
히담27으로 소일하나 와촌들을 내취다분이
사야의 농부들은 실농시록 을뵈리기
양가로 화답하네 화살같이 소든시그슨
윤차마차 전동소리 행객28이 분주하다
화양읍의 오웃하고 봉하돔이 내려가서
지긋참 작성하니 일역29도 거의할시고
되기도 그지없다 객주적의 들어가서
탁주한잔 농근30후의 서로앉아 생각하니
천만금 우리인신 재객 상황로야
마차를 타고가서 다락같은 호달마의
교자같이 꾸민 차의 삼사인이 올라앉아
비호같이 가단말게 무무화여 들어가서
대구성내 대강보니 이전모양 간데없고
별유천지31 되었도다 사방의 전등불은
화전촌32이 되었구나 공중의 달린등은
이월이 분명하여 일월성신33 비렸도다
개명세월 이러한가 주야분간 어렵도다
주가의 찾아가서 뜨신방의 편케쉬고
날샌후의 내다보니 일기괴상 우기이셔
체우중34 앉았다가 오후 한참 멎진 후의
구경하러 가자스라 살펴보니 사방의
전방재물 재물갓도 아니하고 전후좌우
제계집35은 귀구린가 의심된다 여기저기
대보고 주가의 돌아가서 저녁먹고
유화후의 속속히36 일어나서 아침먹고
떠나가니 차시간이 바빴도다 순사괘이
요란스레 차군을 재촉한다 걸음걸이
빨리하여 정거정의 들어가서 차표를

끓어지고 시간을 시간을 기다려서
차칸의 올라앉아 붓다리를 높이엿고
평생못본 타선분녀 동기같이 곁에 앉고
앗치가난 화통명기 무지개가 훗사로
차떠나난 고동소리 천지가 진동한다
번개같이 가는 윤차 구름같이 떠나간다
남쪽으로 부는 바람 현금소리 절로하고
차안의 있는사람 방공중의 올랐도다
사방의 유리영창 이리저리 제켜놓고
백운같이 뜨며가니 신선이 이아닌가
세상조화 기절하다 착산동도 하는법은
뉘가하여 씨겼는고 굴속에 들어갈 때
저성인가 이성인가 문간37찾기 어렵도다
차안의 전등불은 꽃봉의가 흥사로다
구미운듯 소리 성전고를 울리난듯
사백열리대 난기봉 출같이 들어가서
분녀서로 상면하여 손을잡고 반긴후의
너의모양 확실하다 품줄은 너의시댁
따님같이 키운일 은혜를 언제나
다할손가 도로이수 생각하니 본국인가
타국인가 낙낙하다 그날밤 새운후의
사방팔도 살펴보니 이전모양 간데업고
신살림이 무슨일고 일변38은 괴상하고
일변은 우습도다 충청도 계룡산39은
어떠한고 하였드니 와서보니 이와로
십여일 유한후의40 분녀서로 뜻철적의
잘있거라 잘있으며 총성후의 다려다가
가친당의 모여앉아 그린회포41 서로하고
희소담락42 활터이라 몇달안가 올것이니
싫어말고 잘있거라 못본다시 돌아서서
사돈끼리 잠깐볼때 직천와서 하직하고
산의올라 대구와서 숙소하고 한양땅의
들어서서 원구독수 관계만나 여기상봉
여위로다 이말저말 다버리고 익동안부
들었는가 대답하고 점직하게43 하는말이
듣기사 싫지마는 자내 싫어하는
봉창하고 산창하다 이말을 고하니
정신이 아득하고 만맥44이 사라진다

일로보면 자식자손 의무리라 있던생기
없어지고 만맥이 사라지고 말든살이
황흔대어 실망없이 올라가서 생각하니
나무조상 될것이면 자연지 속일손가
마음을 다시먹고 강장하게45 길글올데
참새미 들어자고 처용가서 아침먹고
영천룡 내도가서 조양각을 올라가니
경치도 좋거니와 사방의 풍경단집
이전형용46 전혀없네 창하벽절 대고청동
그란채색 등천하고47 없어졌다 돛단배
대랄 지워물고 잠시앉아 쉬온후의
장터로 건너가고 없는소관 있는듯이
이전저전 다니면서 방구저외 숙여매고
반화장터 가게밑에 국속하게 앉았으니
지국청직 말할지서 과객행색 분명하다
정신없이 앉았다가 영천으로 올라가니
우리고모 거동보소 파파노인 늙은모양
마구할미48 흡사로다49 동서남북 계신고모
삼형제분 모아다간 천하귀물 상품될듯
경상도 갔다놓고 동물회사 꾸렸으며
스긋한중 우습도다 오륙일 유한후의
집이라고 찾아오니 어설푸고 경황없다
구슬같은 손아모양 안전의 밝혀있고
우중50의 세사람은 유종으로 파종51하니
나의마음 어떨소냐 울화가 절로나고
심신이 산란하여 노독52인지 몸살인지
수삼일 대충하고 병석의 누었으니
심신이 산란하여 노정위를 대강닭아
보나오니 너의두고 조용할때 불지어다
기축53사월 이십이레니 아비54작송 하노라
이만끝을 마친듯 글시괴괴55 보시나니
뵈소마오 병술56년 정월57초 오일낮
질하였난 끝
사향가라
어와 가소로다 여자신수 가소로다
원부모 이형제도 후생육 부모타인같고
생아지지 타향이요 유복동기 다형제로
이별후면 타인같고 조부모 갖으시나

노정기라

한번귀령 국난하오 무익불초 아들들은
우리대부 하해제택 태산도 낮으시고

[각주]

- 1) 반석(盤石) : 넓고 튼튼한 돌. 견고하다는 비유임.
- 2) 인읍(隣邑) : 가까운 마을.
- 3) 연천(年淺) : 나이가 적음.
- 4) 팔년풍진(八年風塵) : 여러 해 동안 고생을 겪음의 비유. 유방(劉邦)이 여덟 해를 지난 뒤에 항우(項羽)를 멸한 일에서 나온 말.
- 5) 유자유손(有子有孫) : 유자손. 자손이 있다는 뜻임.
- 6) 풍진(風塵)세월 : 풍진(風塵)은 바람에 날리는 티끌.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이나 시련.
- 7) 광풍(狂風) :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 갑자기 또는 무섭게 일어나는 기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임.
- 8) 수이 : 쉽게.
- 9) 춘풍삼월(春風三月) : 삼월에 부는 봄바람.
- 10) 호시절(好時節)에 : 좋은 시절에
- 11) 불고전후(不顧前後) : 일의 앞뒤를 돌아보지 않음.
- 12) 계축(癸丑) : 육십갑자의 십재.
- 13) 죽장막대(竹杖) : 대지팡이.
- 14) 만리창해(萬里蒼海) : 넓디넓은 푸른 바다.
- 15) 대해수 : 큰 바닷물.
- 16) 흑운(黑雲) : 검은 구름. 먹구름.
- 17) 유련(留連)하고 : 객지에 묵고 있음.
- 18) 창해수(蒼海水) : 푸른 바닷물.
- 19) 아미단장(蛾眉丹粧) : 아미(蛾眉)는 누에나방의 눈썹이라는 뜻으로, 가늘고 길게 굽어진 아름다운 눈썹을 이르는 말. 미인의 눈썹을 이름. 단장(丹粧)은 얼굴, 머리, 옷차림 따위를 곱게 꾸임.
- 20) 봉접(蜂蝶) : 벌과 나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21) 권련초(卷煙草) : 종이를 말아 놓은 담배.
- 22) 탁주잔(濁酒盞) : 막걸리를 담는 잔.
- 23) 흘기(笏記) : 혼례나 제례 때에 의식의 순서를 적은 글.
- 24) 반이리 : 반일(半日)이. 한나절이.
- 25) 동동촉촉(洞洞屬屬) : 공경하고 삼가며 매우 조심스러움.
- 26) 무정천지(無情天地) : 무정(無情)은 따뜻한 정이 없이 쌀쌀맞고 인정이 없음. 천지(天地)는 하늘과 땅을 아울러 이르는 말
- 27) 히담(戲談) : 희담임. 익살로 하는 말.
- 28) 행객(行客) : 나그네.
- 29) 일역(日域) : 햇빛이 비치는 범위 전체라는 뜻으로, ‘천하(天下)’를 이르는 말.
- 30) 농근(農勤) : 농사일.
- 31) 별유천지(別有天地) : 별세계(別世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밖의 다른 세상. 특별히 경치가 좋거나 분위기가 좋은 곳. 별건곤 · 별천계 · 별천지.
- 32) 화전촌(火田村) :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 33) 일월성신(日月星辰) : 해와 달과 별을 통틀어 이르는 말.
- 34) 체우중(滯雨中) : 비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머물러 지는 중.
- 35) 계집 :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 36) 속속히(肅肅) : 삼가는 마음이 생길 만큼 분위기가 엄숙하게.
- 37) 문간(門間) : 대문이나 중문(重門) 따위 출입문이 있는 곳.
- 38) 일변(一邊) : 어느 한편. 또는 한쪽 부분.
- 39) 계룡산(鷄龍山) : 충청남도 공주시와 계룡시, 대전광역시에 걸쳐 있는 산. 감사, 신원사, 동학사가 있음. 국립 공원의 하나임. 높이는 845미터.
- 40) 유한(踰限)후의 : 기한을 넘긴 후의.
- 41) 회포(懷抱) :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情).
- 42) 희소담락(喜笑湛樂) : 희소(喜笑)는 기뻐서 웃음. 담락(湛樂)은 평화롭고 화락하게 즐김.
- 43) 점직하게 : 약간 부끄러운 느낌이 있게.
- 44) 만맥(蠻貊) : 예전에, 중국인이 중국의 남쪽과 북쪽에 살던 민족을 낮잡아 이르던 말.
- 45) 강장하게 : 짧은 다리를 모으고 가볍게 내뛰는 모양.
- 46) 이전형용 : 이전의 형용(形容).
- 47) 등천하고 : 하늘로 올라가고.
- 48) 마구할미 : 늙은 신선 할미. 노파의 이칭임.
- 49) 흡사(恰似)로다 : 거의 같을 정도로 비슷한 모양이로다.
- 50) 우중(雨中) : 비가 내리는 가운데. 또는 비가 올 때.
- 51) 파종(播種) :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키우기 위하여 논밭에 씨를 뿌림. ‘씨뿌리기’, ‘씨 뿌림’으로 순화.
- 52) 노독(路毒) : 먼 길에 지치고 시달려서 생긴 피로나 병.
- 53) 기축(己丑) : 육십갑자의 스물여섯째.
- 54) 아비 : ‘아버지’의 낮춤말.
- 55) 글시괴괴(怪怪) : 글씨 괴상(怪狀)하다.
- 56) 병술(丙戌) : 육십갑자의 스물셋째.
- 57) 정월(正月) : 음력으로 한 해의 첫째 달.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